

인자가 나타나는 날

말씀 : 누가복음 17 : 20~37

요절 : 누가복음 17 : 26,27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와 우주의 종말이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만유회복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뜻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재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인 방향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b,21)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죄의 세력을 끊어 버리며 하나

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마음 밭에 뿌려질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소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립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입니다. 우리는 몸은 비록 이 땅과 세상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의 세계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22)** 여기서 인자의 날은 세상 종말의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즉,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한번은 간질 하는 아이를 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간질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하신 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8)**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하시면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인자의 날 주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같이 22,2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22,2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적 사건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지니라”(25)**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시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습니다. BC538년 바벨론 왕국의 갈대아 지역 왕으로 취임한 키악사레스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포로생활 중이던 다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5,26)** 이 말씀은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

림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
 날 것이요”란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칙
 령이 내려질 날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일곱이레와 예순 두 이레,
 즉 69이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여기서 ‘이레’는 7 년을 의미합니다. “예
 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70이레 예언
 의 말씀을 받은 후 BC 444년 바벨론의 아닥사드다 왕 이십년 니산월 3월 5
 일에 느헤미야에게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진 날
 을 말합니다.(느2:1~5) 또 “왕이 일어나기까지”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
 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AD 33 년 3월 30일로서 이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
 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눅19:38a)라고 외쳤
 습니다. 아닥사드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내
 린 BC 444년 3월 5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AD 33 년
 3월 30일까지의 시간은 173,883일로서 정확하게 69이레가 성취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69이레 이후의 일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순두 이레 후
 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
 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
 실 것을 말합니다. AD 33 년 3월 30일 예수님이 나귀타시고 예루살렘에 왕
 으로 입성하신 나흘 후인 4월 3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
 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
 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파괴를 의
 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AD 70년 예루
 살렘은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마치 홍수가 휩쓸고 간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다니엘의 70 이레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약의 수많은 선
 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약속들은 예수님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의 예언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소망하며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 아래서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과 저주아래 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단마귀의 세력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 죄 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죄와 사단의 권세아래 종노릇하던 인생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자유와 구원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얻었으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죄 사함과 자유, 해방은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와 파멸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흑암과 운명의 멍애는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장차 임하실 인자의 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장차 올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26~29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26~29) BC 2500년 경 있었던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은 장차 올 인자의 때에 임할 심판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6 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심판의 때를 준

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잣나무로 길이가 135 m, 폭이 23 m, 높이가 14m인 3층으로 된 방주를 짓고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 방주를 완성합니다. 마침내 노아와 일곱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홍수로 땅에 물이 넘치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또 룻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룻이 살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폭력, 무자비 등 온갖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 성을 불태워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 룻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한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당세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멸하시되,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란 그 시대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한 노아의 믿음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노아시대 인구를 최소한 10 억 명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11:7) 그 시대는 기후나 환경, 역사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홍수심판을 염려할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대기는 온화하였으며, 들에는 짐승들과 푸른 나무가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올 홍수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죄악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둘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롯의 시대 소돔인구는 약 5 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소돔은 도시문명을 꽃 피웠고 사고팔고 하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하는 일에만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육신을 좇아 살았습니다. 물질과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좇아 살게 되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롯의 심령은 날마다 상하였습니다. 말세의 때는 사람들이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과 풍조와 죄악을 보면서 심령이 상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보다는 영적 문제로 고통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마귀의 세력에 억눌려 고통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육신과 세상의 일만을 좇아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벗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는 롯에게 소돔을 나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노아와 롯에게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의인 노아에게 심판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을 멸하시기 직전에는 롯에게 사위들과 자녀들과 성중에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를 알려주

자 사위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올 인자의 날에 있을 징조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들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잡니다.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 순교 당하는 신자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자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재난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집니다. 산모가 해산을 할 때 처음에는 약한 진통으로 시작하지만 분만이 임박하면 말 할 수 없이 강한 진통으로 그 고통을 참기 힘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재난의 시대와 차원이 다른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지상에서만 일어나던 재난들이 우주적인 재난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6:12~17) 창조 이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식, 월식과 함께 운석이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지진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대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인자의 날이 임박해 올수록 인류종말의 대 환난은 절정에 이르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산처럼 거대한 불타는 운석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불붙은 수많은 운석들이 강 들 위에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 행성들의 충돌과 폭발로 어두워집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우주에서 떨어진 행성들과 운석들로 초토화되어 바다와 강들과 땅위의 생명체들 1/3이 죽게 됩니

다. 하지만, 지구 종말의 대재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무서운 천재지변의 대재앙에 이어 지상에서도 창조이래로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땅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가 올라와 대기가 어두워지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전갈의 독을 가지고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쏘는데, 이 독에 쏘이면 5개월을 고통 합니다. 그 고통이 어찌 큰지 죽고자 해도 죽지도 않습니다. 또 2 억의 군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상의 인구 1/3을 죽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인류최후의 세계대전으로 생화학전과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 왜 이렇게 무서운 재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재난과 환난이 장차 올 인자의 재림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재난과 환난의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재난과 환난의 때가 곧 구원 얻을 때요, 복음전파의 때임을 알고 복음역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 인자의 재림 전에 오는 이런 환난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강해지고 더욱 선명해 집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환난의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하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은 인자의 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노아와 일곱 식구가 방주로 들어간 지 7 일 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룿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해 기록한 고문헌에 의하면 이 때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로 몰려들었고, 남녀 70 만 명이 배 주위로 몰려들었으나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는데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구전체가 물에 잠기는 무서운 심판으로서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생선화석과 조개화석, 퇴적암층을 발견하였고, 해발 2000m의 안데스 산맥에서 대형 바다굴과 바다생물의 화석을 발견

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표면의 70%가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암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아홍수로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사실을 의미합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직 노아가족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때를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낱알이 고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30~3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30~32) 소돔이 유황불에 재가 되던 날 하나님은 롯과 그의 두 딸을 이끌어 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왜 그 경각의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남의 손에 이끌려 소돔을 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소돔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차와 계약해놓은 아파트와 만기가 다 찬 보험금과 막 매도하려던 주식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더라도 하루 만 더 있다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있으며 롯의 처같이 됩니다. 제가 특공부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우리부대는 훈련명령이 떨어지면, 수세식 화장실과 식당, 편리한 시설을 뒤에 두고 전투군장만 꾸려서 산으로 들어가 생활합니다. 언젠든, 어느 곳이든 명령만 내리면 생존물품과 전투장비로 무장하고 출동하는 특공부대원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UBF 선배 목사님들은 가방하나 들고 사명의 땅으로 파송되어 복음역사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큰 로망이었습니다. 선교지 공항에 예비군복 바지에 맨몸으로 가방하나 들고 내려서 믿음 하나 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주님은 이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섯째, 순교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같이 33 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33) 환난의 때를 거치면서 육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보전 할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자는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재림 전에 성도들이 겪게 될 환난 중에서 가장 극심하고 무서운 최후 환난은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 3 년 반 동안의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성도들에게는 42 개월 , 곧 3 년 반 동안의 짐승제앙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계13:15~17a) 이 때 성도들은 짐승우상에 절하여 신앙의 배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할 것입니다.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 신자들은 산과 굴에 들어가서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는 순교하거나 극심한 환난의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짐승제앙이 끝나고야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를 이기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곧 순교 신앙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보배 롭고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꽃대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34,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멧들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34,35) 마침내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런 주님의 재림을 뵈옵는 감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마24:29~31) “그 날 그 환난 후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환난이 지난 후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천지가 캄캄해지면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가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때 천지를 울리는 큰 소리가 나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먼저 간 성도들이 인자의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집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재난들과 대 환란에 이어 지구 종말의 무서운 우주적 대재앙과 짐승재앙이 지난 후에 마침내 임하게 됩니다. 재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재난과 환란, 짐승재앙의 무서운 환란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인내한 믿음을 찾으시며, 환란을 거쳐 승리한 알곡성도를 거두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영적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시험을 통해 도리어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재림의 소망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를 뵈옵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